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6호> 2019년 5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후지이 마사나오 (藤井 正直)

새롭게 과장으로 부임한 후지이(藤井)라고 합니다.

‘럭비 월드컵 2019’가 10월에 오이타현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여러분께서 오이타를 찾아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 <오이타현 소식>

### 온천을 소개하는 해외 PR용 웹 사이트 공개



2018년 5월에 개최된 세계온천지 서밋을 계기로 일본 제일의 온천현 오이타의 온천 정보와 매력을 소개하는 웹 사이트 ‘Explore the ONSEN Country’를 제작했습니다.

본 사이트는 온천을 즐기는 방법은 물론, 오이타현내 온천을 지역 및 온천수의 성분, 특징 (타투 가능, 전세탕, 노천탕 등)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트는 영문으로만 제공됩니다.

▶ <https://en.visit-oita.jp/onsen/>

## <츠클미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스키시에 이어 이번 호는 츠클미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 호도지마섬



츠클미항에서 배를 타고 약 25분 걸려 섬에 도착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좁은 평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3~4층짜리 콘크리트 주택들입니다. 이 독특한 풍경은 ‘미래에 남겨두고 싶은 어촌 역사 문화 재산 100선’에도 선정되었으며, 마치 미로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드는 골목길을 따라 걷는 워킹 코스도 있습니다.

▶ 이루카지마



바다에 둘러싸인 체험형 시설로 돌고래 퍼포먼스뿐 아니라 돌고래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돌고래와 함께 헤엄치는 체험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돌고래 퍼포먼스 (1일 3회)

11:00, 13:00, 15:00



### ▲ 다랑어 요리

다른 곳에서는 맛 볼 수 없는 부위인 심장 등 별미의 다랑어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도 맛보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 오이타 100% 즐기기! 히타 압화 미술관&압화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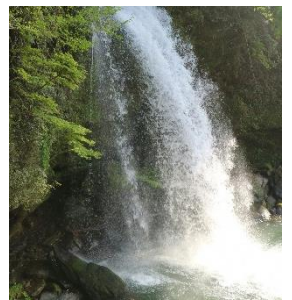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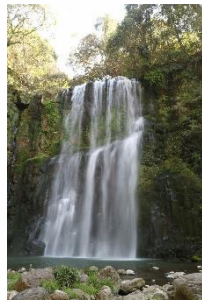
누구나 한 번쯤은 예쁜 꽃이나 잎을 책갈피 삼아 책 사이에 끼워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나온 것이 눌러 만든 꽃 ‘압화’입니다. 히타에서 압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히타 압화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서양 건축 양식이 남아있는 붉은 벽돌의 레이메이칸(黎明館)은 1916년에 세워진 다이쇼 시대의 옛 건물로 당시에는 은행으로 사용되었다가 100여년이 지난 현재는 압화 미술관으로 이용 중입니다. 1층에선 압화 재료와 상품을 판매하며, 2층은 갤러리 및 회의실로 되어 있는 미술관 안을 둘러보며 압화로 만든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꽃잎으로 나비와 새를 만들고 아름다운 사계를 표현한 작품들은 압화로 만들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만큼 섬세해서 마치 물감으로 그려낸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작품을 구경한 후 압화 체험을 하기 위해 한켠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엽서, 책갈피, 손거울 등 다양한 소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는 꽃바구니 액자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배경을 고른 후, 종이 위에 꽃을 올리지만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베나, 비올라, 안개꽃 등 각양각색의 꽃 종류만해도 수십가지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망설여지지만 이미지 구상은 테이블 위에 먼저 해놓고 옮겨 담는게 실패할 확률을 줄여준다는 직원의 조언을 따라 차근차근 꽃들을 골랐습니다. 바깥 쪽은 작은 꽃으로 꾸미고 가운데에 큰 꽃을 배치하면 포인트와 원근법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꽃의 선명한 색상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피해서 장식해두는 것이 좋다는 친절하고 설명을 들으며 알록달록하게 수놓은 세상에서 하나 뿐인 나만의 꽃바구니를 완성시켰습니다.

봄에는 노란 유채꽃, 하얀 벚꽃, 빨간 튜립까지 어딜가나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에 마음이 설레지만 오래 기다린만큼 순식간에 저버리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기도 했는데 이제는 매일 활짝 피어있는 꽃바구니가 그 아쉬움을 달래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압화 체험으로 작은 액자에 봄을 담아보는건 어떠신가요?

- ▶ 히타 압화 미술관 입장료 무료/매주 수요일 휴관
- ▶ 꽃바구니 미니 액자 체험 1,000엔



## 오이타 100% 즐기기! 사쿠라 폭포&지온 폭포



일본 방송에 소개되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사쿠라 폭포는 아мага세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찾아가 수 있으며, 폭포로 가는 길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아닌 평지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쿠라 폭포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마치 벚꽃(사쿠라)이 휘날리는 모습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실제로도 폭포에 다가가자 사방으로 튀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아름답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아мага세정과 쿠스정 사이에 위치한 지온 폭포는 2단 폭포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한 마음까지 깔끔하게 씻기는 기분이 듭니다. 지온 폭포는 폭포 뒤쪽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곳을 시계 방향으로 한바퀴 돌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어 미끌거리는 바위 위를 조심조심 걷고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눈 앞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박력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인기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칸논 폭포 등 물의 고장 히타답게 많은 폭포가 있습니다. 히타에 오시면 시원한 폭포도 함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